|  |
| --- |
| 김민재 약력 |
| 2004년   * 서울 영화 초등 학교 학생회장 * EBS 영재 발굴 프로그램 참여 * EBS 퀴즈 천하 통일 서울 대표 출연   2007년   * 서울 성남중학교 학생회장   2008년   * 서울 동작구 고등학생 동아리회 회장   2009년   * KBS 도전 골든벨 500회 특집 전국 고교 최강전 Victory 100 (서울 대표)   2010년   * 서울 영등포 고등학교 학생회장 * 서울시 최초 고등학생 여름 활동복 제작 (PRIMO) * 서울특별시 서울 고등학생 모범 학생회장 시장 표창상 (서울시장상) * 서울 영등포 고등학교 수석 졸업   2011년   * 한동대학교 입학 * 대학 교육 협의회 입학사정관제 아이디어 공모전 표창 (교육부 장관상) * 서울 엑스포 대학 박람회 대학생 공식 멘토 10인 * HanST for International Student Communicator * 16대 총학생회 Updream 대외 협력국 국원 * Global Leadership School 학부합창대회 MD * HIOS(한동 국제 기구 학회) 14기   2012년   * 2012 한동 예비 대학 Re-union 디렉터 * 한국 UNESCO 주최 Global Youth Forum (Reconciliation) 한국 패널단 선발 * 2012 프랑스 파리 UNESCO 청년 역사대화 국제포럼 한국 대표 10인 * Prep-School for Global Leader 디렉터 * KOICA 캄보디아 국제 개발 협력 RAINBOW 파견   2013년   * 한동대학교 18대 총학생회 ‘좋은 사람들’ 사회협력국 국장 * 2013 예비대학 ‘Vision Challenger’ 디렉터 * 한동대학교 헌혈 캠페인 ‘꽃 피는 사랑’ 기획 및 디렉터 * 한동대학교 사랑의 마라톤 ‘Make your Love FLOW’ 기획 및 디렉터 * 한동대학교 농촌봉사활동 ‘얘들아 농활가자’ 기획 및 디렉터   2014년   * KB국민은행, YMCA 주관 국제 청년 해외 봉사활동 RaonAtti 11기 (필리핀 8개월파견) * 한국 외교부 국제 개발 협력부 인턴   2015년   * 한동 국제 기구 학회 (HIOS) 학회장 * 동아시아 인권 국제 법률 학회 자문위원   2016년   * 한동대학교 졸업 (국제관계학, UIL(US and International Law)전공 – 정치학사, 법학사 취득) * Rin-Avenue 공동 창업   2017년   * 독일 AyaRaya 캐럿 오일, 캐럿 크림 GS쇼핑 런칭 * 프랑스 Patika 천연 오가닉 화장품 롯데면세점 런칭 * 아제르바이잔 Grante 천연 석류 주스 마켓컬리 런칭   2018년   * 15사단 승리부대 육군 물자보급병 현역 입대   2019년   * 군복무   2020년   * 육군 병장 만기전역   2021년   * 개발자 전향 |

**<성장과정>**

* 본인의 가치관, 가치관을 가지게 된 계기

**내가 한 말을 꼭 지키는 사람.**

고등학생때 학생회장을 출마하면서 내건 공약이 있습니다. 여름 활동복을 제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운 여름에 땀 흡수도 잘 되지 않는 빳빳한 교복셔츠를 입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면 재질의 카라티로 여름 활동복을 제작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그 시절 학생회장이라는 직책은 단순한 학생정치를 경험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도, 친구들도 공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었고 허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뱉은 말에 최선을 다해 지키고 싶었고, 약속은 반드시 지켜 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교복 공동구매 회사 중 하나인 PRIMO 지점장님과 여러 번 만나 활동복에 대한 기획과 제안을 드렸고, 교복에 대한 교칙 수정을 위해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선생님들을 설득하였으며 학생 회의 기구를 열어 구체적인 여름활동복 대체 방안과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결국 여름 활동복이 제작이 되었고, 학생들은 여름활동복을 통해 조금 더 쾌적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장상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한 말을 끝까지 지키고 성취하였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그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한 일인지 느낄 수 있는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열정있는 사람.**

대학교 3학년 때 총학생회 사회협력국 국장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 나이 3살때부터 소아마비를 앓으셨고, 평생을 목발을 의지하며 사신 장애인 이십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몸이 불편한 친구들이나 아픈 친구들에게 더 마음을 쏟게 되었습니다. 마음 속 한 켠에 항상 그 누구도 불편하지 않는, 차별 없는 세상을 꿈꿔 왔습니다. 대학교 학생회 사회협력국장직을 수락했던 가장 큰 이유 역시 그러한 일을 규모 있게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회협력국장으로서 가장 마음을 쏟았던 사업은 ‘사랑의 마라톤 – Make your love FLOW’ 였습니다. 포항 지역의 장애인 500명과 대학생 500명이 하나의 짝이 되어 함께 손잡고 단거리 마라톤을 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장벽을 허무는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그리고 완주할 때마다 성금이 적립이 되어 완주한 모든 분들의 이름으로 포항 지역 태풍으로 피해 본 분들에게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단순히 움츠려 있지 않고 누군가에게 따스한 손길이 되어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들 역시 우리와 다를 것 없다는 것을 느끼는 그런 세상을 그려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열정과 마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직접 부딪히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는 사람.**

어렸을 때부터 꿈이 국제 변호사였고,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전공 역시 국제 관계학과 UIL (US and International Law)를 선택하여 관련 학회활동과 공부를 꾸준히 하였습니다. 1학년 입학과 동시에 국제기구학회 HIOS에서 활동을 하였고, 국제 개발 협력에 관심이 더 생기게 되어 KOICA에서 지원하는 캄보디아 국제 개발 협력 체험에도 참여하였고, 파리에서 주최된 국제포럼에도 한국대표로 다녀왔습니다. 경북지역 동아시아 인권 법률학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였고, 1학년때부터 속해 있었던 HIOS의 학회장으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단기적으로, 그리고 책상에서 공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장기적으로 직접 부딪혀가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약 100:1 의 경쟁률을 뚫고 ‘RaonAtti’ 장기 대학생 해외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약 8개월간 필리핀 팡가시난 지역의 덤프사이트 (쓰레기매립지)에서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라온아띠는 순 우리말로 ‘좋은 친구’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파견되었을 때는 그저 봉사, 즉 내가 무언가를 주고 오고, 공여를 하러 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였는데 이들과 함께 살면서 그런 것에 의미를 더 이상 둘 필요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결코 이들과 동떨어져서 책상 앞에서 이야기한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살아보고, 이들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는 것. 이들이 왜 쓰레기 더미로 들어가 살수 밖에 없었는지, 정부의 어떤 정책이 이들을 몰아 내었고, 무엇을 개선 해야 하는지를 그곳에 직접 가서 들어보고 살아보니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추측과 예측, 모호함으로 일관되는 단편적이고 실질적이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지 이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직접 부딪혀 느끼고 그것에서 배우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되었고 두려움을 던져 버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성격의 장, 단점>**

* 장점 / 장점을 발휘한 경험

**소통하는 사람.**

대학교 졸업 후 로스쿨에 바로 진학하고 싶었으나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하여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사업을 통해 스스로 학비를 벌어 보자는 생각이 들었고 좋은 기회가 오게 되어 아는 분과 중계무역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스타트업 청년 벤처 지원금을 통해 회사를 운영하며 직원들도 고용하게 되었고, 유럽의 천연 화장품 브랜드 (Ayaraya, Patika 등)과 총판 계약을 진행하며 백화점과 면세점에 런칭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독일에서 물량이 없다며 일방적인 통보를 통해 배송이 늦어진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런칭 계약 직후 제품을 처음으로 입고 하는 계약이었고, 심혈을 기울여서 이루어 낸 첫 거래였기에 여간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보통 유럽에서 한국까지 배로 배송을 하게 되면 30여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화물선과 컨테이너 선적비등 모든 비용을 이미 계산하여 계약을 한 것이었고, 첫 거래에 달린 신뢰가 있기 때문에 많이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Ayaraya 담당자에게 화를 내기보다 협상테이블을 요구했고,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 즉 약속한 날짜에 물건을 받지 못해 납품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Ayaraya측은 물량 생산이 지속되고 있으나 화물선을 통하여 보내게 되면 시간이 너무 늦게 되어 현재 있는 재고로는 요구 수량을 맞출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음 2차 발주 때 발주 수량을 늘리고, 이번 거래의 운송 수당을 배가 아닌 비행기로 변경하는 것으로 함께 협의를 하였고, 발주 수량을 늘리는 조건으로 추가 비용 없이 Ayaraya측에서 추가된 운임비를 감수하는 것으로 협상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서로의 요구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또 서로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소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의 장점입니다. 개발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소통하는 능력이라고 여러 선배 개발자들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 함께 협력하는 코워커들과 함께 윈윈하는 소통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 단점 / 단점 극복방법

**성격이 급해서 말까지 빠른 사람.**

성격이 급해 보인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놓여져 있는 과제나 해야 할 것들 것 있으면 어서 빨리 해결해 내야 겠다는 생각이 항상 들었고, 여유 있게 주변을 살피기보다는 목표한 지향점을 향해 빠르게 나아가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말을 모두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말까지 빨라질 만큼 성격이 참 급했습니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국제 청년 포럼에서 공동 선언문을 작업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급했던 저는 먼저 결론을 내고 그 결론을 바탕으로 선언문을 만들어 갈 생각이 컸습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에서 온 한 친구가 모두의 의견을 다 차근차근 들어보고 각 나라마다 의견이 다른 것이 분명 있을 것이니 모두의 합의를 이루어 보자라고 말한 것이 아직도 제 마음에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여유와 경청의 모습을 배우게 되었고, 급하게 해결하지 않아도 함께 머리를 맞댄다면 결국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때 함께 고민하여 만들어 낸 선언문이 채택이 되었고, 모두가 만족한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제 안에서 조급하고 속히 결론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너무 멋져 보였던 그 오스트리아 친구의 여유가, 그리고 그로 인해 나온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저를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으로 다듬어 지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내가 말하기보다 더 들으려고 하고, 내가 결정하기보다 상대의 마음을 읽는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소통하는 것이 제 장점이 되었고, 좋은 리스너가 되었습니다.

**<지원동기>**

* 이 일을 지원하는 이유 / 이 회사에 지원하는 이유

**평생 문과로 살아온 법대생 출신 개발자**

서른이라는 짧지도, 많지도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고민 했던 것들 중에 한가지는 ‘내가 어떻게, 그리고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였습니다. 제가 살아온 발자취를 돌이켜 보면 나름대로 제 자리에서, 제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공부를 해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를 고민하며 살아왔습니다.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인권 변호사를 꿈꿨고, 조금 더 큰 무대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에 국제법과 국제 관계학을 선택하여 공부하며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동기를 스스로에게 부여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업을 시작했고, 다른 형태지만 무역이라는 방법을 통해 국제 무대에서 일하며 소비자에게 더 좋은 제품을 제공하고, 있는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업을 하느라 늦은 입대를 했던 저는 코로나라는 범세계적 펜데믹을 겪으면서 또 다시 고민하게 됩니다. 유례없는 전염병과의 싸움속에서 언택트사회로의 변화와 모든 분야에서 플랫폼화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며 프로그래밍을 배워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프로그래밍이라는 또 다른 의사소통 방법을 통해 변해가는 세상에서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전공자인 사람도, 코딩을 어렸을 때부터 했던 사람도, 그리고 코딩에 타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비전공자에, 코딩을 뜻을 세워야 할 나이 서른에 시작을 했으며, 코딩에 타고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다양한 경험을 프로그래밍이라는 도구를 통해 사용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개발자는 단순히 코드를 적는 것이 아닌,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그러한 세상을 위해 더 좋은 컨텐츠들을 개발하는 사람들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개발자가 되고 싶어서 이 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본인이 쌓은 전문성

JAVA를 기반으로 하여 웹 개발자로서 공부하였습니다. JDBC, MyBatis, Oracle Database 등을 통해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쿼리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HTML, CSS, Java Script 등의 웹표준 언어의 이해를 가지고 있어 웹페이지의 퍼블리셔 수준의 프론트엔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JSP와 MVC model 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 웹페이지 구축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현재까지 배운 내용)

**<입사 후 포부>**

* 입사 후 본인의 목표

저의 장점인 ‘소통’을 바탕으로 회사에서 가장 믿음직스럽고, 업무를 진행할 때 가장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 목표를 이루기 위한 본인의 계획 혹은 마음가짐

첫째, 언제나 먼저 듣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보다 팀이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겠습니다. 개발자에게 있어서 고집을 갖는 것은 가장 큰 독이라고 들었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개발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기술 역량에 있어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 발전하겠습니다. 배우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특히 개발자는 평생을 공부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순식간에 바뀌는 기술에 대한 습득을 멈추면 안됩니다. 나를 발전시키고 배우는 것에 항상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으로써, 역량 개발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